

謝靈運 賦論 研究*

梁 承 德**

<目 次>

I. 전 언	3. 重視寫實, 崇尚麗則
II. 사령운 부론	4. 托之不朽, 托之有賞
1. 辭賦의 編輯과 整理	III. 결 론
2. 順從性情, 會性通神	

I. 전 언

南朝의 晋宋에 걸쳐 활동했던 사령운은 자연미를 발굴하여 자각적으로 산수를 심미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첫 번째 작가이다. 그는 아름다운 산수시를 대량으로 창작하여 당시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宋書·謝靈運傳》에서 「매번 시 한 수가 경읍에 오면 귀한 자나 천한 자 할 것 없이 다투듯이 베끼니 하루 아침사이에 선비나 서민들에게 두루 이르렀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도 흠모하여 이름이 경사를 움직였다」(每有一詩至京邑, 貴賤莫不競寫, 宿昔之間, 士庶皆遍, 遠近欽慕, 名動京師)¹⁾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대의 새로운 풍조를 연 시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가로서 사부를 많이 창작했다. 비록 그에게 전문적인 부론 저작은 보이지는 않지만, 몇 몇 산견되는 자료로부터 부에 대한 그의 인식과 비평을 알 수 있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청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교수

1) 梁·沈約撰, <謝靈運傳>, 《宋書》, (臺灣鼎文書局, 1980年 3月)

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본문은 史書와 당시의 문학이론논저 및 사령운의 작품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부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사령운 부론

사령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산수시에 치중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사령운의 문학사상에 대한 탐구는 비교적 빈약한 부분으로 특히 부론에 관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다. 사실 사령운은 산수시 뿐만 아니라 사부창작 역시 상당히 중시했다. 그는 수많은 부를 창작 했는데 그의 부론이 각 편의 부작 속에서 보여 진다. 그는 부를 다른 문체와 구별시켰고 부작에 대하여 세밀한 분류를 하였다. 느낀 바를 말하여 부 짓는 것을 강조했고 나아가 주관적인 자아와 내심의 감정과 흥취를 중시했으며 寫實적인 것과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麗則)라는 관점을 숭상함으로써 사부 풍격에 대한 미학적인 추구하고 독특한 미학흥취를 주장했고 부작이 불후하게 되고 후인들에 의해 감상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본문은 이 몇 가지 점을 토대로 사령운의 부론에 대하여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1. 사부의 편집과 정리

사령운의 부에 대한 편집과 정리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부에 주를 단것이고 두 번째는 부의 총집을 편찬한 것이며 세 번째는 부에 대하여 분류를 한 것 이다. 南朝이전 수백 년 동안에 누적된 부체 창작발전과 南朝 시 사부창작의 번영은 부를 편집하고 정리해야 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을 제공 했다. 편집과 동시에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부에 대한 편집자 혹은 정리자의 견해와 인식이 자연스럽게 포함 되는데, 이 또한 사령운 부론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사령운이 당시에 편집한 부집은 모두 다 산실되어 그가 부집에서 타인의 부작에 주를 달았는지의 여부를 현재로서는 고증할 수가 없지만 부작에 주를 다는 것은 당시의 풍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점에 관하여 程章燦은 《魏晉南北朝賦史》에서 상세한 논술과 더불어 일련의 예를 들었다. 梁武帝와 元帝 父子는 賦注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학다식하고 문재가 있는 문인들을 골라 자신들의 부로 삼거나 자신들이 편집한 賦集에 납입 시켜 주를 달았다. 예를 들어 《梁書·文學傳·周興嗣傳》에서 「天監17년……左衛가 周捨를 인솔하여 칙명을 받들어 高祖가 지은 《歷代賦》에 주를 달게 되었는데 도와주라고 興嗣에게 알렸다」(天監十七年……左衛率周捨奉勅注高祖所制《歷代賦》，啓興嗣助焉)²⁾라고 했는데, 이것은 칙명을 받아 주를 단 것이다. 이밖에 자발적으로 주를 단 것도 있다. 예를 들어 潘岳의 <射雉賦注>에서 徐爰이 「일찍이 이 부를 보니 어둡기만 하고 알지 못 하니 들은 바를 잠시 기록하여 잊어버릴 것에 대비 한다」(嘗覽茲賦，昧而莫曉，聊記所聞，以備遺忘)³⁾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를 단 것으로 목적은 독자가 賦作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는 상술한 자료로 부터 사령운이 부집을 편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집에 수록된 부작에 주를 달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사령운이 부작에 주를 달 때 가장 뛰어난 점은 그가 스스로 주를 다는 체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체제가 웅장하고 방대한 대부인 <山居賦>에 사령운 본인이 自注를 첨가했는데, 그 주석은 상당히 상세하고 확실한 것으로 발음 표기와 문장 해석에 까지 이르렀고, 전고의 출처 또한 명확히 달았으며, 매 단락의 대의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의 주석문은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데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다. 다시 말해서 주석은 부에서 뜻하는 바를 독자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

2) 程章燦著, 《魏晉南北朝賦史》, (江蘇古籍出版社, 1992年 2月) 186쪽.

3) 梁·蕭統編, 唐·李善注, 《文選》,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年 9月)

게 해주는 동시에 부분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령운이 부의 분석적인 사유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山居賦>는 始寧에서의 별장 생활을 쓰고 있다. 그는 謝氏 장원에 있는 북산의 두 정원과 남산에 있는 동산의 산천 형세와 물산의 품류 및 건축 구조를 생동감 있게 묘사 하였지만, 그 묘사가 적어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껴 본인 스스로 「이곳은 거처로 그 멋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꼼꼼하게 음미하려고 하지만 상세하게 기록 할 수 없어 하나를 골라내어 대략적인 상황을 말할 뿐이다」(此焉居處, 細趣密玩, 非可具記, 故較言大勢耳)⁴⁾라고 주를 달았다.

사령운의 「상세하게 기록 할 수 없다」(不可具記)라는 유감 섞인 발언은 산수의 깊은 이해에 대한 분석적인 색채와 漢代 이래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극히 작은 것 까지 분석하는 분석적 사유모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점은 다른 곳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는 <山居賦序>에서 「시는 뜻을 말하고 부는 상세하게 서술하며 箴, 銘, 誄, 頌은 제각기 모두 다 체계가 있다」(詩以言志, 賦以敷陳. 箴銘誄頌, 咸各有倫)⁵⁾라고 했다. 여기에서 그는 부를 다른 문체와 구분 짓는 하나의 근거가 바로 「상세하게 서술한다」(敷陳)라는 특징에 있다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모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江妃賦>에서 「<招魂>, <定情>, <洛神>, <淸思>에 대하여 覃曩이 상세하게 서술하고 고금의 아름다움을 다했다 라고 말했다」(<招魂>, <定情>, <洛神>, <淸思>, 覃曩曰之敷陳, 盡古來之妍媚)⁶⁾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부체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南朝시대에 이르러 웅대하고 아름다운 문사를 창작특징으로 삼았던 大賦가 편폭이 좁고 작으며 운치가 흘러넘치는 抒情小賦에 의해 대체 되자, 부론 비평의 중심점 또한 「이끌어 의기에 이른다」(導達意氣)⁷⁾하고 성정을

4) 李運富編注, 《謝靈運集》, (岳麓書社, 1999年 8月) 226쪽.

5) 同注4.

6) 同注5, 290쪽.

유쾌하고 기쁘게 하며 감개를 표현하는 서정작품에 대한 평론으로 전이되었다. 그래서 사령운의 「부는 상세하게 서술 한다」(賦以敷陳)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성정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즉 「성정을 따라 감히 기뻐하는 바를 쫓는 다」(順從性情, 敢率所樂)⁸⁾이다. 그렇지만 부문에 있어서 「상세하게 서술 한다」(鋪陳)라는 본래의 특징에 대하여 사령운은 여전히 자각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의 분석적 사유모식 또한 계승했다.

사령운은 부를 전면적으로 편집하고 정리한 첫 번째 문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궈냈다. 《隋書·經籍志》四 <總集部>에 그가 편찬한 부 총집으로 《賦集》 92권, 《七集》 10권, 《設論連珠》 10권 3종 등, 총 120권이 있다고 수록하고 있다⁹⁾. 이들 총집의 편집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야 완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령운이 부체문학을 중시했다는 점과 부(문학)발전에 관심을 갖고 전인의 부론(문학)성과를 적극적으로 총결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한 목적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학습과 지양해야 할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데, 그 안에 문학총결에 대한 그의 자각적인 관념이 내포되어있다. 그를 이어 賦集을 편찬한 南朝人 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예를 들어 宋·新渝慧侯의 《賦集》 50권, 宋明帝의 《賦集》 40권, 梁武帝의 《歷代賦》 10권, 郭微之의 《賦音》 2권 등등 이다¹⁰⁾. 이로 부터 우리는 南朝人들의 문학총결의식이 상당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총결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사회의 본질적인 인식이 성숙되기 시작했다. 문학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독립된 위치를 차지했다. 부에 대한 편집과 정리는 문학비평과 역사총결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摯虞의 《文章流別論》, 鍾嶸의 《詩品序》, 蕭統의 《文選序》로 부터 보아, 사령운의 부 총집에 대량의 사부이론이 나타나야 함

7) 逯欽立校注, <感時不遇賦>, 《陶淵明集》, (臺灣里仁書局, 1985年 4月) 145쪽.

8) 同注6, <山居賦序>, 226쪽.

9) 唐·魏徵等撰, 《隋書》, (臺灣鼎文書局, 1980年 3月)

10) 同注9.

에도 불구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쉽게도 하나도 없다.

부집을 편집하려면 부집에 수록된 부가와 부작이 부의 분류 문제에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사령운은 이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체례에 따라 부를 분류했다. 그가 <山居賦序>에서 「오늘날 읍는 것은 경도, 궁관, 유렵, 聲色에 대한 성황은 이미 아니고, 산야, 초목, 수석, 곡식에 대한 일을 서술하는 것이다」(今所賦既非京都, 宮觀, 游獵, 聲色之盛, 而敍山野, 草木, 水石, 谷稼之事)¹¹⁾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령운은 부를 체재와 내용에 근거하여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전인들 중에서 이렇게 분류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부집을 내용과 체재에 근거하여 수록한 부작을 분류하고 편집했다. 사령운이 구분한 「京都」, 「游獵」, 「聲色」의 분류는 후에 蕭統이 《文選》에서 분류한 「京都」, 「宮殿」, 「畋獵」, 「物色」과도 맞물린다. 이것은 蕭統이 《文選》에서 부를 분류 할 때 사령운의 분류법을 참고 했거나 혹은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원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밖에 사령운은 「산야, 초목, 수석, 곡식의 일」(山野, 草木, 水石, 谷稼之事)에 대한 묘사를 제기 했다. 이것은 그가 주동적으로 부의 체재를 확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읍, 궁정, 명산대천으로부터 산과 들, 시골의 풍경과 농민의 일상생활까지 체재를 확대했고, 더 나아가 부의 표현 공간을 확대했으며 부의 표현 내용까지도 풍부하게 만들었다.

2. 順從性情, 會性通神

사령운은 <山居賦序>에서 「옛날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동굴 속에 거하는 것을 巖棲라고 하고, 가옥을 지어 산에 기거하는 것을 山居라고 하며, 수풀과 들뜰에 있는 것을 丘園이라 하고, 성 밖에 있는 것을 城傍이라 한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지만 이치로써 연유를 캐어 낼 수 있다. 마음

11) 同注8.

을 말하자면, 제왕은 실로 은사와 차별이 없지만, 일에 있어서는 산에 거하는 것은 실로 성읍의 처소와 다르다. 몸에 질병이 있어 한적하게 되자 성정을 따르고 기뻐하는 바를 좇아 부를 짓는다(古巢居穴處曰巖栖, 棟宇居山曰山居, 在林野曰丘園, 在郊郭曰城傍, 四者不同, 可以理推. 言心也, 黃屋實不殊於汾陽. 卽事也, 山居良有異乎市塵. 抱疾就閑, 順從性情, 敢率所樂, 而以作賦)¹²⁾라고 했다. 이 단락에서 사령운은 「성정」을 제기했고 성정에 따라 부를 창작하길 요구했다. 「성정」은 본성, 개성, 정서를 뜻한다. 사령운은 부(문학)는 성정에 의해 발해지는 것으로서, 사실 부(문학)를 사람의 본질적인 개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간주했다.

사령운의 「성정」설은 부체문학의 발생문제에 까지 미친다. 그는 부의 창작이 내심에 느낀 바를 발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撰征賦序>에서 「이곳에서 오래된 것을 방문하여 채취하고 이미 지나간 자취를 발로 밟고 찾으려 멀리 느끼고 깊게 감개하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린다, 마침내 듣고 본 바를 수집하여 <撰征>을 지은다」(於是采訪故老, 尋履往迹, 而遠感深慨, 痛心殞涕, 遂寫集聞見, 作賦 <撰征>)¹³⁾라고 했고, <歸途賦序>에서 「옛날에 문장을 하는 士人은 行旅賦를 많이 지었다. 어떤 이는 각 지역을 순시하다가 보았던 경치 때문에 기뻐고, 어떤 이는 강직 당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까봐 두려웠으며, 어떤 이는 지방관원으로 京都에 돌아가 직무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이는 명을 받들어 출정하여 복역했다, 이 모두다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한 것이지 내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자기 자신이 조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辭句로부터 그들의 뛰어난 재화를 발견했지만, 그들의 진솔한 내심과 정감을 찾기는 어려웠다.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물러나겠다고 알리고 은거하기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보았던 경물로 인해 내심에 느낀 바가 있어 발한다」(昔文章之士, 多作行旅賦. 或欣在觀國, 或愴在斥屨, 或述職邦邑,

12) 同注11.

13) 同注12, 169쪽.

或羈役戎陣, 事由於外, 興不自己. 雖高材可推, 求懷未愜. 今量分告退, 返身草澤, 徑途履運, 用感其心)¹⁴⁾라고 했으며, <羅浮山賦序>에서 「마침 꿈속에서의 뜻과 서로 맞아 마침내 느낀 바가 있어 <羅浮山賦>를 짓는다」(與夢中意相會, 遂感而作 <羅浮山賦>)¹⁵⁾라고 했고, 또 <感時賦序>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 같은 것이다. 만년에 슬픈 정서가 생기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어찌하여 품은 바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 부를 짓는다」(夫逝物之感, 有生所同. 頽年放悲, 時懼其速. 豈能忘懷, 乃作斯賦)¹⁶⁾라고 했다. 이 몇 편의 賦序에서 「性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성정의 본질적인 뜻이 실제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느낀 바를 발하여 부를 창작한다는 것인데, 주의 할 만 한 점은 마음속에 느낀 바를 발하여 부를 창작한다는 사령운의 견해는 전통적인 「物感」설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마음의 느낌을 강조했다. 문학예술의 창작은 마음과 사물이 서로 움직이고 마음과 사물이 공감하는 공동작용 하에 나타나는 결과를 강조하나, 전통적인 「物感」설은 사계절, 자연계, 사회로 부터 야기되는 「物感」을 강조한다. <禮記·樂記>에서 「무릇 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¹⁷⁾라는 관념은 사람의 마음은 본래 평정한 것으로喜怒哀樂의 상황이 정적인 상태로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외부 사물의 感發을 받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陸機가 「시는 정감으로 인해 아름답고 멋들어 진다」(詩緣情而綺靡)¹⁸⁾라고 말한 것은 情의 기원을 외부적인 感興으로 귀납시킨 것이다. 즉 「천지 우주 속에 오래 서서 깊게 관찰하고 感情과 興趣를 <五典>과 <三墳>에서 기르며 사계

14) 同注13, 222쪽.

15) 同注14, 284쪽.

16) 同注15, 287쪽.

17) <禮記·樂記>, <十三經注疏>, (臺灣藝文印書館 1985年 12月)

18) 張少康集釋, <文賦集釋>,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7年 2月) 71쪽.

절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탄식하고 만물을 보니 생각이 분분하다; 낙엽이 가을에 다 하는 것을 슬퍼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아름다운 봄에 열리는 것을 기뻐한다.(任中區以玄覽, 頤情志於墳典, 遵四時以嘆逝, 瞻萬物而思紛. 悲落葉於勁秋, 喜柔條於芳春)¹⁹⁾라고 했다. 사령운은 문학의 기원을 마음속의 느낌과 자신의 성정으로 귀속시켰는데, 문학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心」과 「物」중에서도 생동감 있고 활기에 차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강조했고, 사람의 개성, 정서, 感情과 興趣로부터 부(문학)의 기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인용한 <山居賦序>에서 이전의 行旅賦는 대부분이 「이 모두다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한 것이지 내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자기 자신이 조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事由於外, 興不自己)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 내심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가 「은거하기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보았던 경물로 인해 내심에 느낀 바가 있어 발한다」(返身草澤, 徑途履運, 用感其心)라고 한 것은 사람은 性情으로 돌아가야 내심이 속되지 않고 자신의 興趣를 구하여 자신의 感興 토로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체험이 심미와 정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재적인 그의 문학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아를 중시하고 진실한 정감을 숭상하는 六朝文學의 조류를 선도했는데, 이를 두고 沈約은 《宋書·謝靈運傳》에서 그를 「興趣가 높이 들어 올려 진다, 前代の 우수한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후세에 모범으로 전해진다」(標舉興懷,方軌前秀, 垂範後昆)²⁰⁾라고 절찬했을 정도이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부채문학의 기능문제에 까지 미친다. 그는 <山居賦> 정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실로 문장을 좋아하여 종이를 손에 쥐고 붓을 잡아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 한다 다행히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구한 해탈 방법에 향한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용히 사고하며

19) 同注18, 14쪽.

20) 同注1.

그 아름다움을 직시한다. 우수를 품고 문장을 이루고 웃음을 머금고 문리를 쥔다」(伊其齷齪, 實愛斯文, 援紙握管, 會性通神……率多暇日, 自求諸己. 研精靜慮, 貞觀厥美. 懷秋成章, 含笑奏理)²¹⁾라고 했다. 자주에서 「어려서 문장을 좋아했는데 산에 기거한 이래로 다른 인연을 이미 다하였고, 문장으로 읊을 만한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써 한가한 날의 즐거움을 다 한다.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하며 수명을 연장하며 즐겁게 시일을 보낸다」(謂少好文章, 及山栖以來, 別緣既闌, 尋慮文詠, 以盡暇日之適. 便可得通神會性, 以詠終朝)²²⁾라고 했다. 이것은 부가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한다」(會性通神)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 부를 창작하는 목적이 바로 감정을 토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 한다」(會性通神)는 자신의 성정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야지만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용히 사고하며 그 아름다움을 직시 한다」(研精靜慮, 貞觀厥美)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려를 해소 하여 내심을 평정하게 만든 다음에 심미적인 경계 속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우수를 품고 문장을 이루고 웃음을 머금고 문리를 쥔다」(懷秋成章, 含笑奏理)라고 한 것은 애수나 환락은 부를 통해 해결과 토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는 본심을 기탁하고 품은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은 작품을 통하여 산수풍물에 대한 심미 속에서 해탈과 정화를 얻게 된다. 부(문학)의 사회적인 교화와 諷諫기능을 고수한 전통 관념과는 달리 사령운은 부(문학)의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령운이 독특한 심미적인 정취와 예민한 예술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그의 개성, 경력, 사상과 관계가 깊다. 사령운은 어렸을 때부터 방자한 성격으로 인해 史籍에서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과격하다」(爲性偏激)²³⁾라고 했다. 《宋書·謝靈運傳》에서 「성품은 사

21) 同注16, 277쪽.

22) 同注21.

23) 同注20.

치를 좋아하여 수레와 의복은 대단히 아름다웠고 의복과 기물은 옛날 제도로 바꾼 것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송하여 모두 다 謝康樂이라 불렀다」(性好奢, 車服鮮麗, 衣裳器物, 多改舊制, 世共宗之, 咸稱謝康樂也)²⁴⁾라고 했다. 사령운은 세족 출신으로 조부는 이름을 크게 떨친 謝玄이다. 사령운은 어린나이에 康樂公이라는 작위를 이어받았고 더군다나 詩書를 博覽했으며 仕途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이었다. 그러나 그가 劉裕의 막하에 임직하지 않자 劉宋이 세워지고 난 후 사령운은 줄곧 出仕하지 못했다. 그 후 당시의 權臣인 傅亮과 徐羨之 등의 미움을 사게 되어 마침내 永嘉로 유배되어 임직했다. 득의 하지 못한 仕途는 자부심이 강한 그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개가 절로 많았을 것이다. 화가 나고 속이 끓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永嘉의 산수를 두루 유람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때의 문학은 仕途와 功名을 얻는 수단으로 부터 억압된 정서를 해결하고 고민에 차있던 정신을 치료하는 약제로 변했다. 이렇게 문학과 개인 정감의 체험을 가깝게 끌어당기면서 문학의 발생과 본질 및 기능에 대한 관념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그의 사상과도 관계가 깊다. 사령운은 어렸을 때부터 양호한 정통교육과 유가의 적극적인 入仕사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머릿속에 늘 깊게 각인 되어 있었다. 그는 <述祖德詩>에서 조부 謝玄을 칭송하면서 자신의 인생이상을 펼쳤는데²⁵⁾, 사령운의 마음속에는 농후한 유학의식이 늘 잠재되어 있었다.

24) 同注23.

25) 同注22, 116쪽, 「달인은 자아를 중하게 여기고 고상한 정조는 하늘 위의 구름에 있단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지향을 겸하여 지니고 세간의 더러운 먼지에 의해 얽매이지 않았다. 段生이 위나라에서 번진하고 展季는 노나라 백성을 구했다. 弦高는 진나라 군대를 위로하고 仲連은 진나라 군대를 퇴각시켰다. 패옥을 매지 않고 서옥을 어찌하여 나누지 않았는가? 은혜와 하사 받은 것을 거절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뜻은 확실히 일반 사람을 초월한다. 멀리 천년에 걸쳐 청고한 지조가 전해진다. 그 지조를 누가 계승할까? 총명하고 예지한 사람이 국가 대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청담현리를 버리고 도학의 토론을 그치며 은사의 옷을 벗어던져 군장을 입고 국가의 위협을 평정했다. 어려움이 이미 평강하게 되니 존경스러운 군주가 이 백성들을 융성케 했다」(達人貴自我, 高情屬天雲. 兼抱濟物性, 而不纓垢氛. 段生藩魏國, 展季救魯民. 弦高犒晉

그러나 魏晉은 玄學과 佛學이 동시에 발전된 시대로 玄佛의 義理가 그에 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되자 그는 山水審美를 玄學과 佛學사상에 결합하였다. 그가 강조한 「性情」에는 자아인격에 대한 인식과 정신 초탈을 추구하는 玄學사상 및 세간의 모든 욕구를 없애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해탈하여 成佛한다는 佛學의 佛性論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3. 重視寫實, 崇尚麗則

漢 大賦는 지나치게 길치레 하는 소위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사에 경주한다」(競爲侈麗闕衍之詞)²⁶⁾라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부가들은 빠짐없이 찾은 사물을 나열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지만 그 배열은 이따금 현실적이 지가 않는 이상세계에 대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풍조가 魏晉 시대에 이르러 변화되었다. 曹丕는 <答卞蘭教>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수반한 사물의 부류를 서술하는 것이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아름다운 덕행을 찬미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작자는 허사로 묘사하지 않아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賦者, 言事類之所附也. 頌者, 美盛德之形容也. 故作者不虛其辭, 受者必當其實)²⁷⁾라고 밝혔다. 사실증시는 당시 부 창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寫實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집대성한 것은 바로 左思의 <三都賦序>이다. 그는 부서에 서 司馬相如, 揚雄, 班固, 張衡의 부가 사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평을 가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三都賦>를 지을 때 가졌던 진실한 태도를 천명했다²⁸⁾. 그가 부를 지을 때 가졌던 사실적인 태도는 부가 당

師, 仲連却秦軍. 臨組乍不繼, 對圭寧肯分. 惠物辭所賞, 勵志故絕人. 苕苕歷千載, 遙遙播清塵. 清塵竟誰嗣,, 明哲垂經綸. 委講輟道論, 改服康世屯. 屯難旣云康, 尊主隆斯民)

26) 漢·班固撰, 唐·顏師古注, <藝文志>, 《漢書》, (臺灣鼎文書局, 1987年 4月)

27) 夏傳才, 唐紹忠 校注, 《曹丕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2年 10月) 106쪽.

시에 박물분류라는 기능을 본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魏晉 사람들의 사부 추세에 대한 전환으로 인해 현실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상상적인 사실로부터 감각적인 사실로 향해 갔고 개성적인 체험을 강조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령운은 부의 실증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의 <山居賦序>에서 「오늘날 읊는 것은 경도, 궁관, 유럽, 聲色에 대한 성황은 더 이상 아니고 산야, 초목, 수석, 곡식에 대한 일을 서술하는 것인데, 재기가 옛날 사부가들 보다 부족하여 마음을 속세에 놓고 문장에 읊을 때 힘써 이것을 취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니 아득하고 멀도다. <山居賦>를 보는 사람은 張衡, 左思의 아름다운 문사 같은 것은 없으나 尋台, 皓(고대의 은사)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으니 분식을 제거하고 소박함을 취하는 것이 그 마음에 부합 할 뿐이다」(今所賦既非京都宮觀游獵聲色之盛, 而敘山野草木水石谷稼之事, 才乏昔人, 心放俗外, 詠於文則可勉而就之, 求麗, 邈以遠矣. 覽者廢張, 左之艷辭, 尋台, 皓之深意, 去飾取素, 儻值其心耳)²⁹⁾라고 했다. 부는 聲色에 의하지 않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묘

28) 「司馬相如가 <上林>을 지을 때 검은 굴은 여름에 익는다 라고 인용했다. 揚雄은 <甘泉>을 지을 때 옥수는 청 녹색이라고 기술했다. 班固가 <西都>를 지을 때 넘치가 나왔기 때문에 감탄했다. 張衡은 <西京>을 지을 때 바다가 노니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 이들 진기한 사물의 묘사는 작자가 터무니없이 상상한 것이다. 검은 굴에 대하여 고찰하면 서경 같은 곳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이다. 이들 부에서 묘사한 신물을 대조 확인하면 서경 이곳에서는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수사적으로 화려한 언어로 쉽게 수식했으나 내용에서는 허황되고 공허하며 검증할 수가 없다.……」(然相如上林而引盧橘夏熟, 揚雄賦甘泉而陳玉樹青葱, 班固賦西都而嘆以出比目, 張衡賦西京而述以游海若. …… 若斯之類, 非啻於茲. 考之果木, 則生非其壤. 校之神物, 則出非其所. 於辭則易爲藻飾, 於義則虛而無徵……), 「내가 張衡의 <二京>을 모방하길 고려하고 나서 <三都>를 지었는데, 부속에서의 산천과 성읍을 지도로 대조하며 확인하였다. 부 안에 있는 조수와 초목은 史書의 기록으로 검증했다. 민요와 가무는 그 지역의 풍속에 부합되어야 한다. …… 사물을 미화하는 것은 그 본질을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일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실제에 근본 해야 한다 ……」(余既思摹二京而賦三都, 其山川城邑, 則稽之地圖. 其鳥獸草木, 則驗之方志. 風謠歌舞, 各附其俗 …… 美物者貴依其本, 贊事者宜本其實……)《歷代賦》, 宋緒連 遲文凌主編, (遼寧人民出版社, 2001年 1月) 334-337쪽.

29) 同注25, 226쪽.

사를 표방해야 한다. 부기는 사실적인 수법으로 산속에서 몸소 경험한 모든 것을 일일이 묘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적 추구 경향은 허구세계에 대한 일종의 탈출로 신변에 있는 사실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울러 자기 생활의 일부분이 된 산수풍물을 심미적 관조 대상의 객체가 되게 하며, 또한 자신의 서정 대상이 되게 하여 심령을 청산 녹수사이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寫實적인 경지와 實景적인 심미 활동을 통해서 정신의 자유와 정화를 얻을 수 있다. 사령운은 시의 창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를 했다. 陳延傑의 《詩品注》에서 「사령운이 새기듯이 그린 것은 미묘하여 시가에 있어서 홀로 개척한 경지이다. 고로 산수 작품은 전부 객관성을 사용했고 주시하기만 하면 바로 그린 것으로 그 이외에 남아있는 사물이 없을 지경이다」(謝客刻畫微妙, 在詩家爲獨闢之境. 故山水之作, 全用客觀, 皆寓目卽書者, 是外無遺物也)³⁰⁾라고 했다.

漢代는 華美한 사조를 사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삼았다. 建安 시기는 사람들의 자각과 문장의 자각에 따라 문학이론도 성숙해져갔다. 曹丕는 「시와 부는 아름다움을 추구 한다」(詩賦欲麗)³¹⁾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陸機는 「부는 사물을 묘사하니 맑고 밝다」(賦體物而瀏亮)³²⁾라고 했는데, 그들 모두 사물묘사를 부의 창작 목적으로 삼았고, 부는 묘사를 위하여 묘사한다고 여겼다. 魏晉의 사부는 대부분이 서정적인 작품이었지만 상당히 流麗하게 썼다. 華美한 사조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였고 또한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령운은 사부창작관념에서도 아름다움을 숭상해야 하지만 법칙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즉 「則」(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山居賦序>에서 「揚雄은 시인의 부로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고 말했는데, 문체를 겸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이루었다」(揚子雲云詩人之賦麗以則, 文體兼宜, 以成其美)³³⁾라고 말했다.

30) 梁·鍾嶸著, 陳延傑注, 《詩品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2月) 30쪽.

31) 同注27, 240쪽.

32) 同注19, 71쪽.

33) 同注29.

다. 揚雄의 해석에 의하면, 「시인의 부는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詩人之賦麗以則)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작품으로서는 屈原과 荀況의 것이 있다. 屈原의 작품은 감정이 농후하고 색채는 화려하여 상당히 높은 사상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측은한 고시의 의미가 있다」(有惻隱古詩之義)³⁴하여 문아한 원칙에 부합된다고 했다. 《史記·屈原賈生列傳》에서 「〈國風〉은 호색하나 음하지 않고 <小雅>는 원망하고 비방하나 혼란스럽지 않으며 <離騷> 같은 것은 이것을 다 겸한다고 말 할 수 있다」(〈國風〉好色不淫, <小雅>怨誹而不亂, 若<離騷>者, 可謂兼之矣)³⁵라고 했다. 그래서 揚雄은 《楚辭》를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麗以則)라고 여겼다. 사령운은 《楚辭》를 대단히 좋아했으며 작품 속에서도 《楚辭》를 자주 인용했다. 그의 <行事詩> 70수에서 《楚辭》를 언급한 시가 40여 수가 된다. 사령운은 揚雄의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麗以則)라는 이론에 찬동했고 《楚辭》를 모범적인 본보기로 삼았으며, 게다가 「문체를 겸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이루었다」(文體宜兼, 以成其美)라는 심미적인 이상을 제기했다. 어떤 학자는 <山居賦序>의 「재기가 옛날 사부자들 보다 부족하여 마음을 속세에 놓고 문장에 읊을 때 힘써 이것을 취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니 아득하고 멀도다. <山居賦>를 보는 사람은 張衡, 左思의 아름다운 문사 같은 것은 없으나 尋台, 皓(고대의 은사)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으니 분식을 제거하고 소박함을 취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부합 할 뿐이다」(才乏昔人, 心放俗外, 詠於文則可勉而就之, 求麗, 邈以遠矣. 覽者廢張, 左之艷辭, 尋台, 皓之深意, 去飾取素, 儻值其心耳)라는 말에 근거하여, 사령운이 「분식을 없애고 소박함을 취한다」(去飾取素)했기 때문에 그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창작배경과 동기로 보아 <山居賦>를 창작할 당시에 사령운은 仕途가 순탄치 않아 심정은 답답하고 괴로웠으며 시대를 잘 못 만나 태어났다고 느꼈다. 고향 始寧의 별장에서 은거하고 있

34) 同注26.

35) 漢·司馬遷撰, 《史記》, 臺灣藝文印書館.

였지만, 사실 내심은 평정하지 않았고 사회에 대하여 불평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산수에 전념함으로써 내심을 엄폐했고 도가와 불가사상으로 잠시나마 자신의 생명을 안착시켰다. 그가 비록 「분식을 없앤다」(去飾)라고 말했지만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령운 자신의 창작 실천으로부터 보면, <山居賦>는 漢代의 大賦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전후좌우와 동서남북으로부터 묘사하는 모식을 계속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웅대한 기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이밖에 전편에 걸친 맑고 청아한 아름다운 어구는 부작에 富麗한 미감을 더하였기 때문에 결코 소박하지가 않다. 게다가 그의 시가창작은 華美한 사채를 추구했기 때문에 鍾嶸의 《詩品序》에서도 「사령운이 묘사한 산천은.....문채의 대숲이다」(謝客山泉.....文采之鄧林)³⁶⁾라고 평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령운이 설령 분식을 없애고 소박함을 취한다는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이 있었을 지라도, 이러한 이론은 적어도 그의 창작실천과는 모순된 것이고 탈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托之不朽, 托之有賞

漢代는 창조성이 풍부한 시대이고 부의 전성시기 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부채문학은 상당히 큰 예술성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당시의 문학은 아직 독립적인 지위를 얻지 못 한 채 경학의 부용으로 전락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학을 숭상하고 유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부터 부채문학을 박대하였다. 자주 인용되는 것이 바로 揚雄이 漢賦를 경시했던 일단의 말로 출발점이 儒家經學이다. 양웅은 《法言·吾子》에서 「어떤 이가 선생은 어렸을 때 부를 좋아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의 보잘 것 없는 재주이다. 잠시 후에 장부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或問吾子少而好賦? 曰然. 童子雕蟲篆刻. 俄而曰壯夫不爲也)³⁷⁾라고 했

36) 同注30, 5쪽.

다. 양옹이 어렸을 때는 부를 즐겨 지었지만 장년이 되자 사상적인 변화로 인해 경학의 입장에서 부를 작은 기예와 작은 도에 불과하며 법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 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시는 부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난 후 모든 정력을 經學과 儒術에 쏟았다. 蔡邕가 漢靈帝에게 올린 <封事>에서 「무릇 서화와 사부는 재기가 작은 것으로 국정을 바로잡고 다스리는 데에 할 수 있음이 아직 없다. 폐하가 즉위한 초기에 먼저 經術에 섭렵했다. 여러 날 동안 정무를 듣고 문장을 잘 살펴보고 나서 잠시 유람하는 뜻으로 비독으로 노름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교화로 사인을 취하는 것은 근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儒生들이 이익에 경주하게 되자 작자가 비등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경학의 교훈과 풍유의 말을 인용하고, 그 아래에 있는 자는 속어로 짝을 잇자 광대 같았다. 어떤 이는 몰래 문장을 짓고 헛된 이름으로 사칭했다」(夫書畫辭賦, 才之小者, 匡理國政, 未有其能. 陛下即位之初, 先涉經術. 聽政餘日, 觀審篇章, 聊以游意當代博奕, 非以教化取士之本. 而諸生競利, 作者鼎沸. 其高者頗引經訓風諭之言, 下則連偶俗語, 有類俳優. 或竊成文, 虛冒名氏)³⁸⁾라고 했다. 蔡邕의 <奉事>는 인재의 선발과 임용에 있어서, 그는 경학을 하는 사인 중에서 관리로 선발하는 것을 주장했으나 부가를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연히 반대했다. 이 밖에 司馬遷, 揚雄, 班固, 王符 등은 漢賦의 허구와 과장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허사남발」(虛辭濫說)³⁹⁾이라고 비난했다. 이로 부터 당시의 부체문학이 받은 책망이 얼마나 많았고 경학이 문학발전에 대한 억압과 질고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부체문학의 존재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것이다.

魏晉南北朝는 문학자각의 시대로 끊임없는 문학 관념의 쇄신으로 인해 문학은 점차적으로 양한 경학학술의 음영으로부터 걸어 나와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대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문학의 독립적인 품격을 확인하는

37) 漢·揚雄撰, 韓敬注, 《法言注》, (中華書局, 1992年 12月) 25쪽.

38) 劉宋·范曄撰, <蔡邕傳>, 《後漢書》, (臺灣鼎文書局, 1987年 1月)

39) 同注35, <司馬相如列傳>.

동시에 문학의 기능과 가치도 향상되었다. 曹丕는 《典論·論文》에서 「무릇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고 불후의 성대한 사업이다」(蓋文章乃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⁴⁰⁾라고 했다. 曹丕가 「불후의 성대한 사업」(不朽之盛事)이라고 한 것은 「立德, 立功, 立言」⁴¹⁾이 세 가지가 불후하다 라는 유가의 전통적인 원칙을 돌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개인가치를 실현하는 문학의 위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령운은 한발 더 나아가 문학 특히 부의 위치를 한층 더 제고시켰다. 그는 <撰征賦序>에서 「그리하여 듣고 본 것을 쓰고 모아 <撰征>부를 지었는데 명을 받아 북으로 가 군을 위로 한 것과 사신의 직을 마치게 되자 이 부를 빌리어 문자 기록을 남기어 불후하게 한다」(遂寫集聞見, 作賦<撰征>, 俾事運遷謝, 托此不朽)⁴²⁾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부작에 대한 사령운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고, 揚雄이 부 짓는 것을 「어린아이의 보잘 것 없는 재주이고 장부는 하지 않는다」(童子雕蟲篆刻, 壯夫不爲)라고 여긴 것과는 달리 부는 불후 하게 될 수 있고 명성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비록 曹丕의 사상과 유사하지만, 曹丕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經國之大業)이라고 말한 문장은 주로 실용문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순수문학의 문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점이 다르다. 사령운이 부를 지어 불후 할 수 있기를 추구한 것은 부체문학의 사회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문학의 기능을 증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학의 가치를 진정으로 증시했다.

사령운은 <山居賦序>에서 「남겨진 자취의 뜻을 찾아 이것을 빌리어 감상하게 한다」(遺迹索意, 托之有賞)⁴³⁾라고 말하면서 자주의 마지막 구절에

40) 同注31, 240쪽.

41) 「태상에는 立德이 있고 그 다음으로 立功이 있으며 그 다음은 立言인데, 비록 오래되었지만 황폐되지 않아 이것을 불후하다 라고 일컫는다」(太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謂之不朽)(<左傳·襄公二十四年>), 《十三經注疏》, (臺灣藝文印書館 1985年 12月)

42) 同注33, 169쪽.

43) 同注42, 226쪽.

서 「무릇 賞音이 취지를 깨닫길 바란다」(冀夫賞音悟夫此旨也)⁴⁴라는 말을 보충했다. 이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령운의 「知音」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작품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목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또 자주의 첫 번째 구절에서 「서로 이치를 얻으니 적합하고 고인의 유서는 그 뜻과 합하니 웃는다」(理以相得爲適, 古人遺書, 與其意合, 所以爲笑)라고 말했다. 孫權 역시 周瑜를 일컬어 「공은 삼가 나의 뜻과 합한다」(公謹與孤意合)⁴⁵라고 말했다. 사령운이 「뜻이 합한다」(意合)를 강조한 것은 周瑜가 孫權을 이해 한 것처럼 자신을 알아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길 갈망했다. 여기에 주의할 만으로 세 가지 점이 있다.

첫 번째로 사령운은 「知音」을 「賞音」으로 칭한 것인데 감상적인 의미가 「知音」보다는 농후하다. 사령운 이전이나 이후에도 「賞音」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주로 「知音」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노래가 쓰다고 애석하지 않고 단지 지음이 드물까봐 슬프다」(不惜歌者苦, 但傷知音稀)⁴⁶, 「지음을 만나기가 어려움에 아프고 문인이 미치지 못함에 슬퍼한다」(痛知音之難遇, 傷門人之莫逮)⁴⁷, 「지음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고 그만두자 무엇을 슬퍼하리오?」(知音苟不存, 已矣何所悲)⁴⁸ 등등이 그렇다. 사령운에 이어 齊梁의 劉勰이 《文心雕龍》에서 <知音>篇을 열거했다. 劉勰의 「知音」과 비교하면 사령운의 「賞音」설은 사람들의 이목을 새롭게 한 것으로 상당히 참신하다. 그는 일반 독자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감상론의 시각에서 제기한 것이다. 「知音」에 대한 후인의 이해는 「賞音」과는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평론 혹은 감상과 비평

44) 同注43, 281쪽.

45) 同注44, 227쪽.

46) 劉燕著, <文心雕龍·知音的一種現代闡釋>, 《桂林東方叢刊》, 1999:3

47) 馬茂元著, <西北有高樓>, 《古詩十九首探索》, (臺灣純真出版社, 1988年 11月) 62쪽.

48) 同注40, <與吳質書>, 101쪽.

을 포함한 통합론의 시각으로부터 「지음」론을 해석했다.

두 번째로 사령운이 제기한 감상방법인데 바로 「깨달음」(悟)이다. 예를 들어 <山居賦>자주에서 말한 「무릇 賞音이 이 취지를 깨닫길 바란다」(冀夫賞音悟夫此旨也)와 「방생의 이치를 보면 혹여나 깨달음을 얻을 수 가 있다」(見放生之理, 或可得悟也)⁴⁹이다. 劉勰이 <文心雕龍>에서 열거한 <知音>과 비교하여 보면, 독자에 대한 사령운과 劉勰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隱秀>篇에서 劉勰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궁 무진하게 음미하게 하고 백번을 읽어도 싫증나지 않게 한다」(使玩之者無窮, 味之者不厭)⁵⁰라고 말했고, <知音>에서는 「어찌 작품이 너무 심오하겠는가? 자신의 견해가 얕을 뿐이다」(豈成篇之足深? 患識照之自淺耳)⁵¹라고 말했는데, 劉勰이 제기한 것은 사령운과는 완전히 다른 감상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玩」, 「味」, 「照」, 「識」은 가만히 앉아 향유하면서 음미하는 독자의 수동적인 면과 종속관계를 묘사하고 이것을 규범화 시킨 것에 반하여, 사령운의 「悟」(깨달음)는 독자의 주동적인 참여와 본인이 직접 깨닫는 관계를 지적했다. 원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劉勰이 견지한 것은 작가 중심론 적인데 반하여 사령운은 작가와 독자(감상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세 번째로 사령운 「賞音」설에서 말한 문장은 본래 전적으로 부를 가리켜 한 말이나 劉勰의 <知音>설에서 말한 것은 부 라는 문체만을 전적으로 가리킨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령운이 부를 비교적 높은 위치에 놓고 「이것을 빌리어 감상하게 한다」(托之有賞)하고 「이것을 빌리어 불후하게 한다」(托之不朽)라고 바라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부를 상당히 중시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49) 同注45, 275쪽.

50) 梁·劉勰著, 陸侃如 牟世金譯注, <文心雕龍譯注>, (齊魯書社, 1995年 4月) 482쪽.

51) 同注50, 587.

III. 결 론

南朝 晉宋사이에 걸쳐 활동했던 사령운은 부의 창작을 중시하였는데 우리는 몇몇 분산된 자료로부터 그의 부론을 알아 볼 수 있다.

부에 대한 편찬과 정리에서 사령운은 부에 대한 분석적 사유모식을 계승하였고, 부에 대한 자각적인 총결과 분류의식을 갖고 있었다. 부에 대한 분류는 부의 표현 공간을 확대했고, 부의 표현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사령운은 「順從性情, 而以作賦」를 강조했다. 부(문학)는 성정으로 인해 발하는 것으로서 부(문학)를 사람의 본질적인 개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간주했고 부(문학)의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기능을 강조했다는데, 그의 독특한 심미적인 정취와 예민한 예술 통찰력을 알 수 있다.

사령운은 부의 창작관념에서 寫實을 중시해야 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법칙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령운은 부를 지어 불후 하게 되길 추구한 것은 부체문학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문학의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진정으로 중시했다.

사령운의 「賞音」설은 독자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감상론의 시각에서 제기한 것이다. 또한 「깨달음」(悟)이라는 감상방법은 독자의 주동적인 참여와 깨닫는 관계를 지적했고 작가와 독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 參考文獻 >

- 《十三經注疏》，臺灣藝文印書館，1985年 12月.
 梁·沈約撰，《宋書》，臺灣鼎文書局，1980年 3月.
 程章燦著，《魏晉南北朝賦史》，江蘇古籍出版社，1992年 2月.
 梁·蕭統編，唐·李善注，《文選》，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3年 9月.

- 李運富編注,《謝靈運集》,岳麓書社,1999年 8月.
- 逯欽立校注,《陶淵明集》,臺灣里仁書局,1985年 4月.
- 唐·魏徵等撰,《隋書》,臺灣鼎文書局,1980年 3月.
- 張少康集釋,《文賦集釋》,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7年 2月.
-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臺灣鼎文書局,1987年 4月.
- 夏傳才,唐紹忠 校注,《曹丕集校注》,中州古籍出版社,1992年 10月.
- 宋緒連 遲文浚主編,《歷代賦》,遼寧人民出版社,2001年 1月.
- 梁·鍾嶸著,陳延傑注,《詩品注》,人民文學出版社,1998年 2月.
- 漢·司馬遷撰,《史記》,臺灣藝文印書館.
- 漢·揚雄撰,韓敬注,《法言注》,中華書局,1992年 12月.
- 劉宋·范曄,《後漢書》,臺灣鼎文書局,1987年 1月.
- 梁·劉勰著,陸侃如 牟世金 譯注,《文心雕龍譯注》,齊魯書社,1995年 4月.
- 馬茂元著,《古詩十九首探索》,臺灣純真出版社,1988年 11月.
- 梁承德撰,《魏晉南北朝賦論研究》,臺灣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1999年 6月.
- 劉燕著,《文心雕龍·知音的一種現代闡釋》,《桂林東方叢刊》,1999年 3日.

<中文提要>

活動於南朝晉宋之間的謝靈運極為重視賦的創作,我們可從一些零散的材料當中窺見他的賦論.從他對賦的編纂和整理中見出他對賦的分析型思維方式的繼承以及自覺對賦的總結和分類意識.他強調「順從性情,而以作賦」,並指出賦的功能主要是陶冶潛興.賦在創作上重真實,尚「麗」和「則」的傾向,認為作賦是不朽之事,提高了賦體文學的社會地位.

주제어 : 謝靈運, 賦, 賦體, 賦體文學